

화순군,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스마트팜 임대

2연동 딸기 재배 시설 제공
총 2명 선발 공동 운영 방식
무인방제 등 복합 설비 갖춰
내달 4일까지 기술센터 접수

전라남도 화순군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미래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입주할 임차인 모집에 나섰다.

17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27-3 일원에 소재한 1344㎡ 규모의 2연동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재배를 위한 임대 시설을 제공하며 총 2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해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내부 시설로는 자동 양액 공급 시스템,

난방, 무인방제 등 복합 환경제어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 입주한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재배 기술 습득에 적합하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에서 45세 사이의 청년으로 독립 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 경영 3년 이하이고 화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주민등록 포함)이다.

다만 독립 경영 예정자는 관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임대차 계약 체결 전까지 화순군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7월4일까지로 화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의 공고를 참고해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팀에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화순군 임대형 스마트팜.

화순군 제공

역량개발팀에 전화(061-379-5452)하여 확인할 수 있다.

류창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

업인이 스마트팜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향후 농업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함평 청년스트리트 조성 사업
청년 기창업자 2명 추가 선발
함평군, 지원금 700만원 지급

전라남도 함평군이 청년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창업지원금 700만원과 함께 최대 1억원 이내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함평군은 20일까지 지역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함평 청년스트리트 조성 사업’ 참여자 2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함평 청년스트리트 조성사업’은 지역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2년간 총사업비 19억 5000만원을 투입해 빈 점포 등 지역 유휴 시설을 새로운 청년 창업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함평 관내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만 49세(1975년생) 이하 청년으로 업종과 지역에 관계없이 연 매출 1억 2000만원(월 매출 1000만원 이상) 이상인 기창업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을 폐업 또는 리모델링 할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20일까지 방문(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164, 3층) 또는 전자우편(hpjobs@naver.com)을 통해 가능하다.

군은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2차 발표 평가까지 통과한 최종 합격자에게 창업지원금 700만원과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창업에 필요한 리모델링(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홈페이지(함평소식)타기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함평=신재현 기자

‘일자리 우수 인증’ 참여기업 모집
함평군, 세무조사 면제 혜택 등

전라남도 함평군이 지역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함평군은 17일 전남도가 주관하는 ‘2025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 모집이 7월1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고용안정에 이바지한 기업을 선정해 고용환경 개선 자금(직접지원) 14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운전자금 융자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간접지원)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2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인증을 통해 최대 3회(총 6년)까지 간접 지원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하백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함평군 소재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역대표 산업 분야 기업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함평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고시공고2025-417호)을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농어촌공동체과(061-320-2102)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함평=신재현 기자

고속도로 유희지 ‘도시숲’ 조성
장성군-한국도로공사 업무협약

전라남도 장성군이 17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한중 장성군수, 김준영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장성군은 총 12억원을 투입해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부지(남장성분기점 램프구간)에 이팝나무, 배롱나무, 느티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도시숲은 차량 매연과 분진을 차단·흡착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탄소 저장, 기후변화 완화 등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삭막한 고속도로를 오가는 운전자들에게 향산된 경관을 선보여 풍부한 산림자원과 맑은 공기를 자랑하는 장성의 장점을 알릴 수도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협약이 장성군의 ‘천년숲’ 구현과 한국도로공사 ‘ESG경영’을 실현하는 상생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내실을 기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감시
장성군, 불법매출 사전 차단

전라남도 장성군이 7~8월 두 달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에 나섰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녹조 확산과 공공수역 오염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는 여름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단속기간을 갖고 본격적인 현장 감시에 돌입하기로 했다.

하천 수위 상승 시 오염물질 유출 위험이 높은 사업장,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등 20개 장소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2개 단속반을 파견해 현장순찰과 예방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서는 이달 중 폐수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등에 자체점검 사전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김영미 장성군 환경과장은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자체점검 등 오염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능주 농악대가 화순군 능주면 들판 일원에서 지난 14일 ‘능주 들소리 만드리’ 민속공연을 펼쳤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능주 들소리 만드리 민속공연’

전라남도 화순군이 지난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능주면 소재지 일원 들판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능주 들소리 만드리’ 민속 공연을 펼쳤다.

17일 화순군에 따르면 오전 10시 마을 깃발을 앞세운 능주 농악대가 능주면 복지회관을 출발하여 먼 소재지를 돌면서 거리로 나온 주민들로부터 전폭적인 호

응을 받았다.

모내기 공연은 능주농협 로컬푸드 옆 논을 무대로 논 고사 후, 주민들이 직접 모를 심는 상사 소리를 시작으로 흥겹게 진행됐다.

능주 들소리는 2013년 12월12일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65호로 지정됐으며 2024년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전라남도

대표로 출전해 전승상을 받는 등 무형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월 전라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구북읍 화순군수는 “지금까지 ‘능주 들소리’의 보전·전승에 힘써 주신 보존회 회원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군에서도 최대한 지원하여 우리 지역의 무형유산이 후대에 잘 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중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영·섬유역본부, 재난 사고상황 위기대응 훈련

비상대책반 편성 등

한국수자원공사영·섬유역본부가 풍수해 등 재난 및 사고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오는 30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17일 한국수자원공사영·섬유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 대응 등 홍수기간 내 발생한 사례를 기반으로 다양한 재난·사고상황을 설정하고 사고대응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편성하는 등 대응 절차 및 복구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가압장 침수사고 대응을 실제처럼 진행하여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대상으로 소방청과 합동훈련 실시로 유관기관과 유기적 공조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가 지난 12일 재난 사고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시행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제공

주인호 영·섬유역본부 본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예측 가능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

적인 훈련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 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